

3

인간관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

Comparison of Autogenous Modernity in Views of Humanity

연구개요 및 문제제기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은 한국 근대 종교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함
- 두 사상의 인간관은 평등, 신관, 근대성 등에서 상이함
- 본 발표에서는 인내천, 신인조화, 불연기연, 성사재인 등 주요 개념을 통해 인간-우주-신의 관계와 근대성의 차이를 고찰

동학사상의 인내천 개념

-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의미로 동학사상의 핵심
- 파격적인 **평등사상** - 백정과 여성, 어린이까지도 하늘이 될 수 있다는 주장
- 전근대 사회에서 "천자(天子)"만이 하늘이 될 수 있던 상황에서 **인간세계의 평등**을 주장
- **변혁적 근대성**을 추구 - 서구적 근대성에 부합하는 개념으로 평가됨

"인내천(人乃天)은 내유신령, 외유기화라는 동학사상의 천인지인 관계 중 초월적 측면을 배제하고 내재적 측면을 극대화하여 서구적 근대성에 부합되도록 한 개념"

대순사상의 신인조화개념

- **신인조화(神人調化)**: 신(상제, 신명)과 인간의 조화 및 상생 강조
- 인내천에 대한 비판: 인간은 하늘과 동등할 수 없으며, 천지의 은혜를 망각한 인간의 오만을 경계
- **해원(解冤)**과 **보은(報恩)**: 원한의 해소와 천지에 대한 은혜 갚음의 중요성
- **삼계관(三界觀)**: 천계·지계·인계가 신명에 의해 운행되며 상호작용함
- 인간의 지위는 변혁이 아닌 신명과의 조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상승

동학vs 대순 인간관 비교

구분	동학사상	대순사상
핵심 개념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곧 하늘	신인조화(神人調化) 신과 인간의 조화
평등 실현	즉각적, 혁명적 변혁 추구	해원과 상생을 통한 점진적 실현
인간·신 관계	인간 중심, 신명 개념 약함	신명과의 상호작용 중시, 신도(神道) 강조
우주관	삼계(三界) 개념 부족	삼계(천·지·인) 구조 명확
근대성 특징	변혁적, 서구적 근대성에 부합	자생적 근대성, 신인관계 재활성화

불연기연과 성사재인의 의미

불연기연(不然其然)

동학사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불연)**도 수행을 통해 **언젠가는 이해(기연)**할 수 있다는 의미

인간의 이해력과 도통을 통한 깨달음의 가능성을 제시

성사재인(成事在人)

대순사상에서 **성공은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의미

선천: "**모사재인(謀事在人)**, 성사재천(成事在天)" → 후천: "**모사재천(謀事在天)**, 성사**재인(成事在人)**"

구천상제의 인신강세 이후 인간 주체성의 획기적 변화를 시사

인간과 신명의
위치 관계
선천(先天)

구천상제
인신강세
라미널리티

인간 주체성의
최대 확장
후천(後天)

삼계론과 신명론

- 대순사상은 삼계(三界)를 중심으로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설명
- 신명(神明)은 "진리에 지극한" 존재로 천지의 운영을 담당함
- 동학사상과 달리 신명계와 인간계의 상호작용을 강조

천계(天界)

천상계, 명부 포함
천상문명 기획

인계(人界)

인간 세상성사
재인의 주체

지계(地界)

지하계 포함과
학문명의 기원

자생적 근대성의 차이점

동학사상의 근대성

- 즉각적·혁명적 평등 실현 추구
- 변혁적 근대성: 기존 질서의 급진적 개혁 지향
-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서구적 근대성과 접점

대순사상의 근대성

- 점진적 상생과 해원 중심의 변화
- 신인조화: 신명과 인간의 상호작용 강조
- 성사재인(成事在人): 인간 주체성의 확장

한국적 근대성의 다양성

두 사상 모두 서구 중심의 근대성과 다른 한국적 자생 근대성의 경로를 제시하며, 인간 주체와 세계관의 재구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실현 방식과 우주론적 프레임에서 차별성을 보임

결론 및 의의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 모두 한국적 **자생적 근대성**의 중요한 사유 흐름을 제시함
- 동학은 **평등과 즉각적 변혁**을, 대순은 **해원과 점진적 상생**의 길을 제시
- 두 사상의 인간관은 서구적 근대성과 차별화된 **동서 사상의 접합점**을 보여줌

인내천과 신인조화는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닌, 현대 한국사회에서 인간 주체성과 신-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유 방식을 제공하는 철학적 토대가 됨